

# 기초 교육의 방향

## 신임 기초교육원장에게 듣는다

최근 몇 년 간 서울대학교는 학부제 대학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초 교육의 강화는 핵심 과제였다. 이 과제 수행의 중심 기관으로서 기초교육원은 기초 교육을 확대·심화하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추진하였다.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임현진 교수(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로부터 기초 교과과정의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다.



제3대 기초교육원장을 맡은 임현진 교수(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학습개발센터:** 현 교무처장이신 변창구 선생님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원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임현진:** 먼저 기초교육원의 변모 과정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왕재(의과대학 의학과) 선생님께서 초대 원장을 맡으셨지만 비교적 짧

은 기간이었고, 변창구 선생님께서 교무 부처장과 겸임으로 2대 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번 2학기에 기초교육원이 단과대학 수준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되면서 제가 3번째 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초교육원은 고등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기초교육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임 기간 중 우선, 기초교육원의 틀을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교양 과목들—핵심 교양, 일반 교양, 학문의 기초—가운데 핵심 교양이 100강좌에 불과한데, 강좌 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또한 각 단과 대학들이 교양 과목을 늘리는 추세이고, 기초교육원에 요구하는 과목도 늘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원이 그런 요구에 맞춰 교양 과목의 종류와 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연구 중심 대학과 교육 중심 대학으로 나누고 있는데, 점차 연구 중심 대학으로 수렴되는 추세입니다.

## | 특집 | 기초 교육의 의미와 전망

미국에서도 교양 과목들을 핵심 교양으로 만든 후에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부분 대학들은 핵심 교양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해 핵심 교양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입생 세미나 과목'으로 62개의 과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총장님을 비롯하여 교무처장님, 학생부처장님도 한 강좌를 맡으실 예정입니다.

기초교육원은 학제 간의 연계 강좌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대학들을 수평적으로 연계시킬 뿐 아니라, 학부와 사회 진출, 대학원 진출을 수직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경력 관리 강좌를 만들어서 학문 진출과 사회 진출 두 분야로 나누어 개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 및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단체, 학교, 국제기관 등으로 다양화시켜서 7개 정도의 경력 관리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사회봉사 과목을 개설합니다. 대학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뿐 아니라 인성을 계발해야 합니다. 서울대학생들은 선택된 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형식적인 봉사 활동의 경험을 가질 뿐 실제적인 봉사 활동의 경험이 빈약합니다. 학점 · 비학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봉사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비학점이 되어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과거 서울대학교에서 개설한 바 있는 교양과정부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학생을 교양과정부에 위탁하는 형식이었지만, 현재의 기초교육원은 단과대학에 속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과목을 개설해 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전공이 없는 상태에서 기초교육원 소속으로 입학하여, 1~2년 동안 자유롭게 공부한 후에 전공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면 학사 지도 전담 교수를 모셔, 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학년 시기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1학년 교육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과 또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초교육원이 1학년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부 대학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운영 방법은 학부 대학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의 의미를 가집니다.

고등 교육은 전 지구적인 문제의식을 가르치면서 한국적인 정체성을 심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학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라는 학문에 있어 종속이 심합니다. 대학의 고등 교육 과정에서 성균관 교육의 전통을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식, 미국식 교육 과정이 혼합된 형태만이 나타납니다. 교육을 통해서

한국적 정체성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70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한국의 문학,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총 7개 영어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희망하면 참여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글쓰기>와 <말하기> 시간 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홍보가 잘 안 되었지만, 공과대학에서는 과학과 글쓰기 과목의 개설을 요구하였고 기초교육원은 이런 요구에 맞춰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2004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계획하신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현진:**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입니다.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점수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었지만, 앞으로 소질이나 적성에 맞추어 입학한 학생들이 다양성, 수월성,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해방 이후 높아진 교육의 수요에 맞춰 백화점식 교육 중심 대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현실을 보면 학문 후속 세대들을 지원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여 핵심 교양 등의 T.A.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학부 교육도 탄탄하게 만들고 동시에 대학원생들은 강의 경험을 통해서 예비 교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에서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수 1인당 박사과정 학생 1인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계획인데 강의의 양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안팎으로 위기입니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들은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학부가 탄탄해야 대학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총장님과 원장님께서는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까?

**임현진:** 저와 총장님과의 관점은 일치합니다. 총장님은 학부 정원을 줄여 탄탄한 교육을 제공하며, 지력과 인성을 모두 계발하는 기반 위에서, 대학원을 강화시킨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 대학으로 간다는 것은 총장님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과거의 학부제는 유사학과의 통폐합이나 또는 수요가 없는 학과의 폐지로 오해받아 왔습니다. 학부 대학은 오히려 전공을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인기, 비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기초 학문 분야를 계속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부 대학으로 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과 내 선후배의 관계가 중시됩니다. 외국의 대학은 기숙사의 선후배의 관계가 토대가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부 구조가 빈약합니다. 유사학과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시장 논리를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학부 대학의 모델도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학과를 유지하고 어려운 학과는 보호하겠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와 <말하기> 교과목이 정말 필요한 강좌임을 알리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30명 정원은 담당 강사들이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도하기에 많아 보입니다.

**임현진:** 학생들의 수강 평가와 소감을 받아서 광고에 넣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교무처와 협의할 것입니다. 4개의 수업은 지도 강사에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향후 3개의 수업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지금은 강사 분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시는 동안 연구 실적을 내야 합니다. 이를 돋기 위해 강좌 수를 줄이고, 경제적인 면에서의 개선과 더불어 열심히 연구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단위 3회 계약이나 2년 단위 3회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6년이면 그 사이 전임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와 <말하기> 교과목을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전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임현진:** 1년 정도 운영한 후에, 수요의 증가를 살펴보고 내년도 2학기에는 필수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필수로 전환하지 않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기초교육원의 계획과 관련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현진:**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함께 강사 워크숍을 분야별로 준비하여, 서울대학교에서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워크숍에 참석하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강사가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석하게 할 것입니다. 기초교육원은 글쓰기 교과목을 학점으로 부여하고 있고, 글쓰기 교실에서는 글쓰기 상담을 해 주는 등의 상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 상호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